

分斷史의 再照明：日本學界의 한 研究*

秦錫用**

<차례>

- | | |
|------------------------|----------------------|
| I. 序 | IV. 蘇聯의 「韓半島進攻」 |
| II. 蘇聯의 對日參戰에 관한 美蘇交涉 | V. 38線劃定의 經緯 |
| III. 「포츠담會談」에 있어서 韓國問題 | VI. 結：「冷戰史觀」으로부터의 脫皮 |

I. 序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의 허리에 그어진 分斷의 38선은, 한국전쟁 후 휴전선으로 대치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민족의 생활과 운명을 결정하는 최대최악의 변수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統一問題가 분단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국내외의 학계와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의 하나가 되어왔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통일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分斷의 經緯에 대한 분석은 연구환경의 불편과 자료의 제약 등등의 이유로 분단 40년을 맞는 현시점에서도 아직 정확한 해명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2차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에 빚어진 동서독 분할점령의 경우, 오늘날 그 과정에 대해 특별히 큰 의문점은 없다. 그러나 한반도분할점령의 경우, 특히 美國의 政策決定過程

* 이 글은 필자의 독자적인 연구가 아니라 吳忠根의 慶應義塾大學法學博士학위논문인『朝鮮分割占領への道程：米國の政策 1944～45』의 내용을 소개·해설한 것이다. 吳忠根의 학위논문 자체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의 글격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朝鮮半島をめぐる 米ソ關係：ソ連の對日參戰を中心に」(『共產主義と國際政治』第7卷 第2號, 1982年 7~9月), 「戰時米ソ交渉における 朝鮮問題：ポツダム會談を中心に」(『法學研究』第56卷第6號, 1983年 6月), 「分斷史의起點：米ソ分割占領過程の再檢討」(『コリア評論』第27卷第271號 1984年 12月)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은 上記 3개의 논문을 중심으로 吳忠根의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인용문현은 대부분 吳忠根의 것이다.

**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 성심여자대학 강사.

程을 중심으로 불분명한 점이 적지않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근년에 들어 미국무성과 통합참모본부의 비밀문서들의 상당한 부분과, 전시지도자들의 私文書들이 공개되면서, 분단의 경위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었으나 주로 미국측의 자료와 문헌에만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제약을 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차제에, 분단의 경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가 최근 일본학계에서 발표되었다. 즉 吳忠根의 慶應義塾大學 박사학위논문인 「조선분할경령에의 도정 : 미국의 정책 1944~45」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에서 그 논지를 爭點을 중심으로 간추려 본다.

II. 蘇聯의 對日參戰에 관한 美蘇交涉

분단문제를 논의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반도문제와 관련이 있는 연합국의 戰時外交로서, 「카이로회담」(1943년 11월)과 「태헤란회담」(1943년 11월)에 이어 곧바로 「얄타회담」(1945년 2월)과 「포츠담회담」(1945년 7~8월)을 거론해 왔다. 그 회담들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巨頭會談을 중심으로 한 政治·外交의in 측면들을 경조해 왔다.

그러나 吳忠根은 미국의 軍事史書(Cline, 1951:322)의 지적처럼, 戰時에 있어서 국제정치문제의 대부분은 軍事情勢에 의해 좌우되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 이번에는 군사계획立案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軍事的인 측면과 政治外交의in 측면을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든(Sir Anthony Eden)도 “전시에 있어서 外交는 戰略과 쌍동이이다”(Strang, 1970)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미국의 戰時外交文書나 전시지도자의 회고록도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군사문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연합국의 군사회담에 참석했던 소련의 장군들이, 순수히 군사분야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일일이 스탈린(Joseph V. Stalin)의 허락을 맡아야 했던 것도 政治·外交문제와 軍事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吳忠根은 소련의 2차대전 중의 外交文書, 戰史, 軍人의 回顧錄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 자료만으로 당시 소

련의 정치적 의도나 정책결정과정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軍事行動의 실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있으며, 미국 및 일본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군사관계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에서, 吳忠根은 1944년 10월 중순에 처칠(Winston Churchill)의 訪蘇를 계기로 이루어진 모스크바에서의 美蘇交涉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 회담에서 소련의 對日參戰에 관한 중요한 「군사적」—따라서 「정치적」—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련이 對日參戰한 결과, 전승국의 일원으로서 극동지역의 전후처리에 가담하게 되었고, 전후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 즉, 한반도의 분할, 중국혁명, 한국전쟁 등이 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소련의 對日參戰決定과정과 그 문제를 둘러싼 미소간의 交涉에 대한 분석은 한반도의 분단문제의 해명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소련이 對日參戰의 用意를 최초로 밝힌 것은 1943년 10월의 「모스크바外相會談」에서였다. 즉 스탈린과 몰로토프(V.M. Molotov)가 비공식적으로 英美의 대표들에게 독일패전 후 對日戰에 참가할 뜻이 있음을 비친 것이다 (Harriman & Able, 1975:243; Eden, 1965:418). 특히 스탈린은 헐(Cordell Hull) 미국무장관에게 “이것을 대통령에게 전해도 좋다”(Hull, 1948:1309) 고까지 말했다.

그 후 소련의 對日參戰문제는, 1944년 가을의 모스크바교섭에서 거론되어 미·소양국이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10월 14일의 英蘇首腦회담에 미국대표로서, 해리만(W. Averell Harriman)대사와 함께 참석한 소련주재 미국군사사절단(U.S. Military Mission to the USSR) 단장 딘(John R. Deane) 장군은 對日參戰에 있어서 소련군의 전략목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Defense, 1955:36; Deane, 1973:241~242).

- ① 시베리아철도 및 블라디보스톡半島의 확보
- ② 沿海州 및 캄չ카半島로부터의 對日作戰을 위한, 미국과 소련戰略空軍의 설치.
- ③ 日本本土와 大陸간의 연락로 차단.
- ④ 滿州에 있어서 일본의 地上軍 및 空軍의 격멸.
- ⑤ 太平洋보급루트의 확보.

이 5개 항목 중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론 ④항이다. 즉 소련의 군사적 역할이 「滿州」의 일본군을 격멸하는 것으로限定되어, 해당초 韓半島가 소련군의 작전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점이다(FRUS, Malta and Yalta: 362, 365~374).

그러나 스탈린은 소련의 행동범위를 滿州에 국한시키려 한 미국의 의도에異議를 제기했다. 스탈린은, 일본군을 격멸하기 위해서는 西쪽에서는 張家口와 北京을 강타해야 하며, 東쪽에서도 北韓의 여러 항구들을 소련이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Feis, 1957:464~465), 이 주장에 대해 미국측은 특별한 반론없이 묵인하였다.

이 점에 대해 吳忠根은, 雄基, 羅津, 清津 등 北邊諸港에 대한 소련군의 限定作戰에 兩國이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얄타에서의 군사회담에서도 모스크바合意內容이 재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회담」에서는,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와 스탈린이 소련의 對日參戰代價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우고, 동시에 전후 한국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國際信託統治를 실시할 것, 외국군대는 주둔하지 않을 것 등에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이 首腦회담과는 별도로 열린 일련의 군사회담에서, 미군측은 소련군의 對日作戰계획이 44년 가을의 모스크바合意內容 그대로인지 물고, 소련측으로부터 병력의 移送이 약간 늦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FRUS, Malta and Yalta: 762~793, 758, 835).

III. 「포츠담회담」에 있어서 韓國問題

戰時 최후의 거두회담인 「포츠담회담」은 독일敗戰 후의 유럽의 전후처리를 협의할 목적으로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에 걸쳐 열렸다. 미국은 이 회담을 極東의 군사 및 정치문제를 英蘇首腦와 더불어 토의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軍當局과 國務省은 일찍부터 그 준비에 착수하여 회담전까지 「포츠담회담」에 임할 政策代案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보름동안의 회기 중 한국문제를 포함한 극동의 정치문제는 토의되지 않았다.

수뇌회담과는 별도로, 2회에 걸쳐 열린 군사회담에서는 극동에 있어서의 兩軍의 作戰範圍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한반도와 관련된 육상작전의 한

계선이나 군사점령을 위한 지역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38線이 「軍事的 便宜」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은, 38선의 확정이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미소간에 밀약되었다는 이론바 「얄타密約說」을 부정하고, 1947년 제81차 미의회하원외교위원회에서 행한 웹(James Webb) 국무차관의 證言(Hearing, June 8~23)과 트루만(Harry S. Truman)의 『回顧錄』(Truman, 1956)을 근거로 삼아, 미군이나 소련군이 「즉각적인 장래에」 한반도로 침공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얈타에서는 물론, 포츠담에서 조차 韓半島의 장래에 관해 아무런 명시적인 合意를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¹⁾

그러나 吳忠根은, 포츠담에서의 韓國問題의 「不言及」을 「트루만대통령과 번즈(James F. Byrnes) 국무장관의 外交的 賭博」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戰後 중국과 한국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태는 그들의 외교적 도박이 실패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美國務省은 일찍부터 「포츠담회담」을 극동문제토의의 好機로 생각하고, 政策代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특히 滿州와 韓國에 대해서는, 소련의 進出로 이 지역이 「極東의 폴란드」로 化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FRUS, Potsdam I :927-929). 해리만(W. Averell Harriman)大使와 스팀슨(Henry Stimson) 육군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측군들도, 이를 지역을 소련의 力擴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트루만과 번즈는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루만과 번즈는, 原子爆彈을入手하였다는 점, 日本이 平和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련이 對日參戰의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 등 「포츠담회담」 개최 직전에 발생한 情勢變化를 근거로, 소련이 對日參戰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시켜 政治的 문제에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政策을 변경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히로시마에의 원폭투하 직후인 8월 9일 소련이 對日宣戰함으로써, 물론 그들의 「외교적 도박」은 성공하지 못했다.

포츠담의 首腦회담에서는 극동의 정치문제가 전혀 토의되지 않았으나, 2회

(1) 金學俊, 1976:323, 330. 이 글은 38선 확정의 문제를 다루어 온 국내외의 著書, 論文, 時評 등을 「얄타밀약설」과 「군사편의설」로 2대별하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金學俊은 諸說이 상호보완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문서상 군사 편의설이 좀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에 걸쳐 열린 군사회담에서는, 극동에 있어서의 兩軍의 作戰범위에 관한 모스크바合意가 재확인되었다. 7월 24일의 軍事會談에서 소련의 안토노프(Al-exei Antonov)장군은, 소련의 참전댓가에 관한 중국과의 교섭이 끝나면, 8월 후반에 對日參戰할 것이며, 소련군의 목표는 “미국이 할당한 대로” 滿洲의 일본군격멸과 遼東半島의 점령이라고 언명했다. 그는 회의 종반에도 作戰目標에 대해 반복언급, 소련군의 역할에 관한 모스크바합의를 지킬 것을 명확히 했다(FRUS, Potsdam, II:345, 352, ИВОБСС, TOM V:539).

그런데, 여기에서 吳忠根은 미국이 할당한 소련군의 戰略目標에 한반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반도는 그 면적이 日本 本州와 거의 같으며, 2,500만의 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30만 이상의 일본군이 배치되어 있는 政治的・軍事的 요충지이다⁽²⁾ 그러므로 이 지역이 「滿洲」라는 호칭아래 朴시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거나, 그 중요도가 낮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당시 미국무성과 軍部는 한반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카이로선언」이 한국에 관한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점으로도 뒷바침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소련의 전략목표로부터 한반도를 제외했는가?

前述한 바와 같이, 미국은 1944년 봄 이래 國務省部局間 極東地域委員會(FEAC)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후처리를 검토해 왔다. 그 검토기록에 의하면, 미국의 기본구상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카이로선언」의 공약인 韓國의 獨立을 달성한다는 것이다(FRUS; 1944, V:1224~1228, 1239 ~1242).

- ① 군사작전, 점령, 잠정적 군정
- ② 신탁통치 및 그 下에서의 임시정부 수립.
- ③ 완전독립

이 기본구상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하여 국무성은, 한국의 정치적 장래가 美英蘇(만약 극동전에 參戰할 경우)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군사작전 및 점령에서부터 감독 및 신탁통치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에 관계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2) Reports, 1966:459, 在韓日本軍은 軍屬을 포함하여 30만 3,600명이었는데, 美軍 측은 이를 과대평가, 36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또한 1940년의 한국의 인구는 2,433만명(『昭和 19年 朝鮮年鑑』 p. 53).

그러나 국무성은, 단독으로든 다른 연합국과 공동으로든, 한국의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나라는 전후 한국관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한국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그만큼 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이 한국의 전후관리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지 그 주변에서의 군사작전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FR-US, 1944, V:1225~1226), 他國에 의한 단독관리의 경우에 대하여, 특히 소련을 想定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한국이 독립에의 이행기간 중 소련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소비에트化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도 그와 같은 전개를 장래의 태평양지역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FRUS, 1944, V:1241).

1944년 前半에 형성된 이와 같은 對蘇不信은, 유럽점령에 있어서의 소련의 팽창주의적 행동⁽³⁾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알타회담 전에 준비되었던 브리핑 페이퍼는 “한국에서의, 어느 일국 단독의 군사작전과 그에 따른 점령작전은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FRUS, Malta and Yalta:359). 나아가 이 문서는, 미국이 한국의 점령과 군정에 있어서 추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提言하고 있다(FRUS, Malta and Yalta:360). 즉 政治的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무성과는 달리 軍當局에서는 순수히 군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보고 있었다. 「태해란회담」에서 스탈린의 對日參戰약속이 이루어진 후 美英聯合參謀本部(CCS)는 소련을 가급적 빨리 對日戰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Defense, 1955:26~27). 왜냐하면, 태평양방면에 있어서 미군의 반격과 일본본토에 대한 최종적 공격작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大陸의 日本軍의 本土後援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美陸軍의 軍事史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미국군사지도자들은, 만약 (일본본토)進攻이 필요하다면, 北部中國, 滿

(3) 그 중심은 폴란드문제였다. 1944년 7월 22일에 소련의 후견아래 「폴란드國民解放委員會」가 발족하고, 8월 1일의 바르샤바蜂起와 소련의 구원협력거부, 12월 31일 루브린政權의 성립, 1945년 1월 5일 소련의 同政權승인 등 「알타회담」을 앞두고, 사태는 우려 할만한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洲 및 韓國의 日本軍은 소련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었다. 육군참모본부와 마샬(George C. Marshall) 장군은 이 전제에 입각하여 작업을 추진 중이었으며, 또한 육군은 軍事的 觀點, 즉 예상되는 미국군인의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점에서, 소련을 對日參戰케 하는데 열심이었다(Matloff, 1959:537).

要컨대, 美軍部의 구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大陸과의 교통을 단절시킴으로써 日本本土를 완전히 봉쇄, 일본의 군사력을 本土와 大陸部로 分斷시킨다는 것이었다.⁽⁴⁾ 그렇다면, 만주와 이어져 30만의 일본군이 배치되어 있는 한반도가 소련의 전략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軍事的으로 볼 때 확실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의 임무 중에 한반도를 제외시킨 것은 소련의 戰略임무에 관한 앞의 5개 항목을 딘장군이 작성한 것, 그리고 해리만대사를 長으로 하는 당시의 駐蘇美國大使館의 특수한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吳忠根은 해석하고 있다.

루즈벨트의 신임이 두터웠던 해리만은, 모스크바 부임후, 특히 소련의 국동참전을 둘러싼 교섭에서는 국무성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의 命을 받아 스탈린과 접촉하였다. 사실상 모스크바에 있어서 해리만의 임무는, 외교·군사·경제에 걸치는 모든 문제를, 對蘇관계 전체의 시야에서 조정하는 것이었다(Stettinius, 1949:95; Deane, 1973:10~12). 딘장군이 통합참모본부를 대표하는 군사사절단장으로 모스크바에 주재하게 된 것도 “군사행동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合意를 이해하는 人物”(Harriman, 1975:228~229)이라는 이유로 해리만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딘장군이 해리만의 감독을 받고, 또한 그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정부內에 三省調整委員會(SWNCC)가 설치되어 활동을 개시한 것은 194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이므로(Cline, 1951:326-327) 당시의 모스크바大使館은 정치·군사분야에 있어서 對蘇관계를 가장 원활히 조절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었다.

要컨대 吳忠根은, 소련의 전략목표로부터 한국을 제외한 것은, 한국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욕구를 경계한 미국무성의 용의주도한 구상이었던 것으로

(4) 統合參謀本部는 1944년 7월 11일, 소련의 對日參戰에 관계없이 일본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本土의 海上封鎖와 폭격으로 저항력을 약화시킨 후 本土로 進攻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Defense, 1955:28-30).

이해하고 있다.

한편, 1960년대에 공표된 미국의 「포츠담회담」 관계문서에 따르면, 안토노프가 한반도에 진공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록의 문제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안토노프]는 또한 半島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할 소련군과 협조하여, 미국이 한국연안에 대해 작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FRUS, Potsdam, II :351). (강조점은 吳忠根의 것). 이에 답하여 마샬장군은, 미국은 일본본토작전준비 등의 이유로 그와 같은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문답으로부터, 한반도가 소련군의 작전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소간에 양해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학자들도 다수 있으나⁽⁵⁾ 吳忠根은 이에 反論을 제기하고 있다. 안토노프의 발언을 한반도進攻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이 작전목표를 한국에까지 확대했다면, 미군측이, 특히 소련군의 역할을 지정한 당사자인 딘장군이 異議를 제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점.

둘째, 미군측이 미소공군작전 경계로서, 清津—會寧—南陽을 잇는 철도선로를 지정하고 다음회담에서 이 선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 (FRUS, Potsdam, II :1328~1330).

이 문제에 대해 吳忠根은 영국측 회의록 (Butler & Pelly, 1984:638)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문제의 안토노프의 발언은 遼東半島를 공격하는 소련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한국에서 奉制作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었다는 것이다.

IV. 蘇聯의 「韓半島進攻」

소련은 독일패천 후인 1945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본격적으로 극동방면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하여, 對日開戰時 158만의 大軍을 滿蘇국경 및 그 주변에 전개하였다. 소련군의 기본전략은, 主力으로써 동서 두 방면으로부터 일본군을 挾攻, 만주중앙부에서 포위·섬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

(5) 吳忠根은 다음과 같은 학자들을 예로 들고 있다. 宋南憲, 1980:97-98; Beloff, 1953:156; Cho, 1967:43-44; Cumings, 1981:117, 125.

할 것은 主攻의 일익으로서 東의 沿海지방에서 공격하는 제 1 국동방면군의 동향인데, 그 부대의 임무는 西로 향해 吉林, 長春 방면으로 진격하여, 동고방면으로부터 東進하는 또다른 主攻부대와 만주중앙부에서 만나는 것이었다(ИВОБСС, V:550, ИВМВ, XI:199). 그리고 이 방면군의 좌익에, 후에 북한에 진주하는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장군 휘하의 25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부대 역시 主임무는 만주진공이었으며, 부차적 임무로서 일본군의 조선방면과의 연락을 단절시킬 것이 부과되어 있었다.

8월 9일의 개전과 동시에 소련군은 東西北의 3방면에서 만주중앙을 향해 작전을 개시하였다. 한반도로의 진공은 물론 없었다. 다만 공군은 夜明과 동시에 北邊諸港을 공격했으나 포츠담에서 합의한 미군과의 경계선 이북에限하였다. 滿洲에서의 緒戰에서 성공하여 자신을 얻은 소련군부는, 海軍에 「추가적 임무」로서 북한 諸港에의 상륙을 명하고, 8월 12일 이후 비교적 소규모의 병력으로 雄基, 羅津, 清津을 점령했다(ИВОБСС, V:553; Meretskov, 1971:355). 吳忠根은,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소련군부가 장기전략으로서 어떠한 한국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開戰의 시점에서 北邊諸港에 대한 限定作戰 이외에 한반도에의 본격적인 진공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음이 확실하다고 논하고, 이것은 소련군의 실제 행동에 의해, 또한 대일참전 후의 소련군의 행동에 대한 딘장군의 평가—소련측이 미군과의 海空경계선을 잘 지켰다는 평가(Deane, 1973:275)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소련군의 본격적인 북한진출은, 8월 16일, 트루만—스탈린 간에 한반도분할점령이 합의된 후에 이루어졌다. 북한진주군이 된 25군 주력은 8월 17~18일에 걸쳐 滿洲의 戰區로부터 급거 南進, 육해공로를 따라 8월 21일 元山, 24일 平壤에 入城한다(Василевский, 1975:574; Meretskov, 1971:355). 그러므로 소련군이 開戰과 동시에 入北했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吴忠根은 논하고 있다.

이 시기에 동유럽에서 소련이 보인 팽창주의적 행동에 비추어보자면, 極東에서의 소련의 「抑制된 행동」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吴忠根은, 소련의 「自制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미군과 마찬가지로 소련군부도 관동군의 戰力を 과대 평가하였다. 제 1 국동방면군의 행동개시를 신중히 검토한 것도(Малиновский, 1966:102;

Shemenko, 1970:349)——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東正面에서의 공격이 저지되어 작전전체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포츠담에서 민주진공작전에 호응한 「연계행동」을 미국에 요청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 스탈린은 對日參戰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 목전의 이익을 얻는데는 성공했지만, 반면 對日占領 및 管理參加 등 보다 중요한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약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소련은 후일의 對美交涉의 성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터에 미국과의 군사적 결정을 面前에서 노골적으로 위반할 수가 없었다.

V. 38線劃定의 經緯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할 뜻을 밝힌 후, 미국은 終戰對策에 부심하였다. 일본의 항복 후 일본군 무장해제의 지침이 될 「일반명령 제 1호」 초안은, 이미 전년도 末부터 미군부내에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령지역의 할당에 관한 제 1절은 8월 10일 밤부터 11일 아침에 걸쳐 국무·육군·해군 三省調整委員會(SWN-CC)에서 작성되었다. 8월 11일 3성조정위에서 보고된 제 1절 초안의 한국관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b. 민주, 북위 38도 이북의 한국 및 檺太에 있는 일본국의 선임지휘관과 모든 육상·해상·항공 및 보조부대는 소련극동군 총사령관에게 항복할 것.
- f. 북위 38도 이남의 한국에 있는 일본국의 선임지휘관과 모든 육상·해상·항공 및 보조부대는 미합중국한국파견군(U.S. Expeditionary Forces in Korea) 사령관에게 항복할 것.

이 초안은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날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과 나미츠(Nimitz) 제독 등 태평양 방면의 육해군사령관에게 정보로서 전달되었다(FRUS, 1945, Vol. VII:634~636; Feis, 1967:18; Morison, XIV: 356). 그 후 이 초안은 대통령의 決裁를 얻어 연합국에게 발송될 때(8월 15일)까지 부분적으로 추가·수정되었는데, 한국관계의 前記 f항목도 다른 항목(일본본토 및 필리핀점령에 관한 항목)과 통합하여 새로 e항이 되고, 항

복접수자도 맥아더로 변경되었다.⁽⁶⁾

그러나 38선분할점령계획에는 변경이 없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논의의 촛점은, 8월 11월의 시점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이유로 38선을 설정했느냐 하는 점이다. 불과 보름 전의 「포츠담회담」에서 소련군의 목표를 滿洲와 遼東半島로 재삼 확인하였으며, 미국정부도 1949년 6월의 의회증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8월 11일의 시점에서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할점령계획이 일반명령제 1호의 초안의 일부로서 8월 11일 중에 협정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38선은 왜 생겨났는가?

38선에 의한 한반도분할점령계획은, 태평양전쟁의 戰場 전체를 참전국의 점령지역으로 区劃한 원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의 政策決定의 全體像 가운데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吳忠根은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8월 11일 점령지역을 구획할 즈음, 각국군의 작전지역이 곧 점령지역이라는 일반원칙을 설정하고, 이 원칙과 맥아더의 최고사령관 임명이라는 2件事에 대해 12일까지 스탈린의 同意를 얻었다는 사실(FRUS, 1945, VII:634)을 들어 당시 미소가 점령지역을 둘러싸고 無法天地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吳忠根에 따르면, 38선 획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잠정적 軍政이나 信託統治 등 한국의 전후관리를 4大國共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소련의 管理參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일본본토와는 달리, 소련의 占領參加를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었다. 이 점에 관한 미국의 판단은, 반도의 南半部라는 협소한 지역에 태평양방면의 미육해군으로부터 독립된, 단독의 진주부대의 파견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로부터도 추측될 수 있다.

둘째, 그 때까지의 미소의 決定과 항복접수에 관한前述한 一般的 原則 등에 비추어, 적어도 北邊諸港까지 혹은 無水端—白頭山 以北을 소련점령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⁷⁾

(6) 8월 15일의 최종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日本大本營, 日本國本土에隣接한 諸小島, 北緯 38度 以南의 韓國 및 菲律賓諸島에 있는 日本先任指揮官과 모든 陸上, 海上, 航空 및 補助部隊는 美合衆國 太平洋陸軍總司令官에게 降伏할 것(FRUS, 1945, VII:659).

(7)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소兩軍사이에서 합의된 海空軍作戰境界는 無水

세째, 미국은 일본 본토외에 전후 소련에의 귀속이 확정되어 있는 千島列島와 遼東半島까지 自國擔當지역으로 할당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련과의 사이에 생길 점령지역의 不均衡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즉 無水端—白頭山 라인으로부터 38도선까지의 「讓步」지역은,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제공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네째, 미국은 千島列島만 接受하면, 한국에 있어서 소련의 慻意的 행동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다섯째, 미국은, 日本, 千島, 大連 등 정치적·전략적으로 보다 중요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점령해야 했는데, 그와 동시에 한반도全土를 점령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했다. 이 점에 있어서 한반도의 분할점령은, 군사적 便宜性이, 다른 정치적 고려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부적으로 적용된 사례였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吳忠根은 38선획정에 관한 기존의 학설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① 對日參戰과 동시에 한반도에 진공한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席捲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緊急措置였다는 논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② 소련군이 일방적으로 半島로 南進하는 사태를 예상하여 미국이 미리 후퇴시킨 停止線으로서 38선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논거가 박약하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自國의 작전지역 내에서 항복을 접수한다는 원칙에 소련이 동의할 것을 전제로 전후처리대책을 세웠다. 소련의 動向을 보는 미국의 눈 [目]이었던 모스크바의 해리만, 딘, 그리고 에드워 W. 폴리특사 등은 이것 조차도 소련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보고 미군의 한국 및 滿洲상륙과 北上進出을 건의했던 것이다(FRUS, 1945, VII:149, 967). 假定상의 소련의 행동을 의식하여, 당연한 自國占領지역을 후퇴시킬 정도로 미국이 허락하지는 않았다.

③ 오끼나와[沖繩]의 미군으로부터 한국이 6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空間의인 要因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 미국이 自軍地域에 포함시킨 北方의 千島는 列島의 길이만도 700마일이 넘는다.

端—長春을 잇는 선인데, 白頭山북쪽 기슭을 스쳐 滿州로 뻗치므로 吳忠根은 편의상 「無水端—白頭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④ 關東軍의 管轄權이 일시 북한에 미쳤다는 사실을 들어 미소의 분할점령을 설명하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컨대 東京大學校의 關寬治교수는, 본래 38선은 일본의 大本營이 5월 8일에 발한 朝鮮軍과 關東軍의 분담지역의 경계선이며, 對日參戰한 소련군은 關東軍과 싸웠기 때문에 이 선의 北과 南의 일본군이 각각 소련군과 미군에게 항복한 것은 군사적 조치로서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논하고 있다(關寬治, 198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견해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첫째, 미소간에 합의하고, 재삼확인해 온 소련군의 목표는 「滿洲의 日本軍」이라고 지리적으로限定시켜, 지배범위에 애매함을 남기는 「關東軍」이라는 명칭은 한번도 공식적으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

둘째, 미국이 8월 11일의 時點에서 大本營命令에 기초한 일본측의 滿鮮防衛體制를 알고서, 일반명령제 1호의 작성에 당면하여 그것을 참고로 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미국의 자료에는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딘이나 러스크(Dean Rusk) 등 관계자의 증언은 오히려 이 전제를 부정하는 내용이다(FRUS, 1945, VI:1039) 소련침전 후의 8월 9일에 大本營은 中·南部朝鮮防衛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17방면군을 關東軍에 예속시켰는데, 그 결과 8월 10일 이후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全半島가 사실상 關東軍의 管轄地域에 들어갔다.⁽⁸⁾

세째, 이미 이 시기에는 미국의 對蘇자세가 경화되어 있었다. 트루만이 포츠담이래 對日占領으로부터 소련을 배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령 미국이 일본군의 방위체제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련의 점령지역을 할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그것을 사무적으로 적용하는 안이 함이 허락될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38선을 획정하게 된 미국측의 의도와 입장에 관한 吳忠根의 해석에도 다음과 같은 약간의 무리는 발견된다.

첫째, 미국이 소련의 작전지역을 「滿洲地域」에 한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팽창욕구를 경계하였다는 것과, 소련의 한반도점령참가를 허용한

(8) 日本國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關東軍(2)－關特演・終戰時の對ソ戰』, 朝雲新聞社, 1973年, pp. 397-399.

또한, 昭和 20 年 5 月 30 日의 「大陸命 第1338號」에 의해 關東軍管轄하에 들어간 북한지역은, 咸鏡南·北道, 平安南·北道의 4道로서, 후의 38선 이북지역과는 약간 다르다. 같은 책, p. 378.

4개국공동관리라는 「카이로선언」이래의 공식적인 방침이 서로 상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을 주장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일본군의 항복을 조속히 얻기 위해 無水端—白頭山 이북지역과 北邊諸港을 소련의 작전지역에 포함시키기로 미소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38도선 이북을—함경북도만이 아닌—소련이 점령하게 된 충분한 설명이 될수는 없다는 점.

세째, 점령지역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38도선 이북을 소련에게 「讓步」했다는 해석은 글자 그대로 「解釋」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증빙자료가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

네째, 미국이 千島列島에서의 戰略범위가 한국에까지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38도선 이북을 포기했다는 해석 역시 「해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군사적 편의성이 국부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간주할 경우, “정치적 고려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이것은 吳忠根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理由」들과 다소 상충적이라는 점.

여섯째, 38도선이 미국에 의해 설정될 당시(8월 11일), 蘇聯軍이 아직 한반도에 進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련의 進攻능력에 대한 미국의 과대 평가, 東歐점령지역에 있어서의 소련의 팽창주의적 행동에 대한 불신감 등 의 이유로 소련군의 進入이전에 38도선을 설정하여 “소련군이 한반도全土를 석권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미국이 결정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38선이 소련군의 入北이전에 거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線이 소련의 한반도進出과 직접적으로는 관계없이 고안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점 등이다.

VI. 結：「冷戰史觀」으로부터의 탈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吳忠根의 연구는 제 2차 세계 대전 말기부터 終戰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對韓政策과 38線劃定의 經緯에 대해서, 영국과 소련측의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대단히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한반도 분할점령 문제에 관한 기존의 通說들이 戰後의 미소冷

戰이 소급되어 적용된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冷戰史觀」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冷戰史觀」에 입각하면, 한반도는 소련의 동아시아로의 팽창욕구와, 미국의 아시아진출의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으로 이해되지만, 사실은 그와 달랐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는 미국이 자국의 일차적인 관심사인 일본과 중국의 전후처리를 놓고 소련과 정치적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지역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분할점령은 미국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吳忠根은, 東歐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소련군의 북한침주는 한반도의 앞날에 암영을 던진 것이었지만, 대전말기부터 종전직후까지 소련의 對韓政策은 수동적이었으며, 극동문제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소의 38선 분할점령이 그 자체로 북한의 共產化와 그에 따른 南北의 영속적인 分斷을 운명지운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한국내부의 분파적인 정치정세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과는 별도로 국제정치적 요인만을 고려할 경우, 문제는 미국이 잠정적인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하지 않은데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냉전적兩極體制가 한반도에서 뿌리내리기 전에, 알타에서 스탈린의 동의를 얻은 4개국공동관리체제로 조속히 이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동관리방식이 일본에 과급될 것을 두려워하여, 4개국공동관리에 비하면 명백히 미국에게 불리한 소련과의 二分體制 속에서 成算없는 통일노력을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吳忠根은, 미소의 분할점령이, 東西對立과 한국내의 정치적 리더쉽을 둘러싼 항쟁과의 상승작용에 힘입어 한반도의 영속적인 분단으로 진전되었다고 평가하고, 그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금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참 고 문 현

Beloff, Max

1953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1944~1951*, Oxford University Press
Butler, Rohan, & Pelly, M.E., ed.

1984 *Documents on British Policy Overseas*, Series 1, Vol. I, *The Conference at Potsdam, 1945*,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Cline, Ray S.

1951 *United States Army in World War II. Washington Command Post: The Operations Division*,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Cho, Soon Sung

1967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umings, Bruce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

Deane, John R.

1973 *The Strange Allian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Eden, Anthony

1965 *The Eden Memoirs: The Reckoning*, London, Cassell

Feis, Herbert

1957 *Churchill, Roosevelt, Stali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Contest over Japan*, W.W. Norton.

Harriman, W. Averell & Able, Elie

1975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Hull, Cordell

1948 *The Memoir of Cordell Hull*, 2 vols. New York, Macmillan.

Matloff, Maurice

1959 *United States Army in World II: Strategic Planning for Coalition Warfare, 1943~1944*,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Meretskov, Kirill

1971 *Serving the People*, Moscow.

Morison, Samuel Eliot

1975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XIV, Little Brown.

Shemenko, S.M.

1970 *The Soviet General Staff at War, 1941~1945*, Moscow.

Strang, Lord

1970 "Prelude to Potsdam: Reflexions on War and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July.

Stettinius, Edward R., Jr.

1949 *Roosevelt and Russians; The Yalta Conference*, New York, Doubleday.

Truman, Harry S.

1956 *Memoirs*, 2 vols, New York, Doubleday and Co.

U.S. Congress

1949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81st Cong. 1st Sess., Hearing on H.R.
5330, *Korean Aid*, Washington,

U.S. Department of Defence

1955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Military Plans, 1941~1945*, Washington.

U.S. Department of State

195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_____, *The Conference of Berlin (The Potsdam Conference), 1945*, 2 Vols.

1965 _____, 1944, *The Near East, South Africa, The Far East*, Vol. V.

1969 _____, 1945, Vol. VI, *The Commonwealth, The Far East*.

1970 _____,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Reports of Gerneral MacArthur

1966 Vol. I. *The Campaigns of MacArthur in the Pacific*,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Институт Маркизма-Ленинизма при ЦК КПСС

1963 «Истори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41~1945» Москва,

1980 «История втвной мировой войню, 1939~1945», Москва,

A. Василевский

1975 «Лело всей жизни», Москва,

Р.Я. Малиновский, ред.

1966 «Финал», Москва

關寛治

1984 “分断の責任：米ソ冷戦は何をもたらしたのか,”『世界』八月號.

金學俊

1976 “38線劃定에 관한 論爭의 分析,”『韓國政治學會報』第十輯.

宋南憲

1980 『韓國現代政治史』第1卷, 成文閣.